

2023. 4. 1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3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

소방행정과장

류중무

6981-0033

홍보교육팀장

강대원

6981-0033

홍보

임태성

6981-0033

매수 : 2매

관련 누리집

<http://fire.seoul.kr/jungbu/>

화마 뚫고 시민 구조한 소방관...시민 생명 안전하게 구조

-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, 오피스텔 화재로 고립된 시민 생명 구해
- 인명 수색 중 적재물 밑에 깔려 있던 요구조자 발견 후 지체없이 구조
- “소방관이라면 누구나 해야 했던 일...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터”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화재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소방관 2명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”라고 밝혔다.
- 주인공은 서울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이동석 소방장(38세)과 총무로119안전센터 박세왕 소방사(28세)이다.
- 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소방장과 박 소방사는 27일 오전 8시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지체없이 출동했다.
-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즉시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계단을 이용하여 발화층으로 추정되는 7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였다.

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오피스텔 내부를 수색하던 중 적재물 밑에 깔려 있던 시민 1명(남성, 50대)을 발견했다.

- 상황의 긴박함을 인식한 박 소방사 등 2명은 쓰러져 있던 시민을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의 뜨거운 화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재물 더미 속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 후 밖으로 나왔다.
- 구조한 시민을 현장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한 후에 장비를 탈의하고 나서야 안면부, 목 등에 화상을 입은 것을 인지하였다. 현재 이 소방장과 박 소방사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 예정이다.
- 소방관으로 3년 8개월 재직 중인 박 소방사는 “소방관이라면 누구나 해야 했던 일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소방관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- 한편 다행히 생명을 구한 시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.
- 권태미 서울 중부소방서장은 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재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린다”며 “소방 직원 모두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라고 전했다.